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학술행사 인식 연구*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Perceptions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 Online Survey

이 종 옥 (Jongwook Lee)**

김 수 정 (Soojung Kim)***

오 상 희 (Sanghee Oh)****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결과 |
| 2.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 5. 논 의 |
| 3. 연구방법 | 6. 결 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4개 학회(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소속된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학회에서 발간, 운영하는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반을 다루는 학술지의 품질, 중수, 심사, 출판·유통, 독자층, 현장성, 학제성, 국제화, 차별화를 비롯하여 학술행사에 대한 참여·불참 이유, 목적 달성 정도, 학술행사 간 차별화, 공동학술대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학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97명의 학회원이 설문 응답을 완료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4개 학술지의 전반적인 품질은 양호하나, 심사, 출판·유통, 독자층 확대, 현장성 강화, 국제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학술지 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술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및 사회적 측면을 두루 갖춘 대규모 공동학술대회를 기획하여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 방법의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 학회 운영사례 조사결과와 2022년 12월에 개최된 공동학술대회에서 학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헌정보학 학술지와 학술행사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published and operated by the four major academic societi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to know the members' perceptions of journals' quality, number, review process, publication/distribution, readership, practicality, interdisciplinarity, internation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In addition, the reasons for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scholarly events,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purpose, differentiation between scholarly events, and ways to revitalize joint academic conferences were examined. A total of 197 members of the four societies completed the survey.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overall quality of the four journals was good, but they still needed to be improved in the review process,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readership, practica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to specialize each journal needed to be considered as well. To revitalize scholarly events, large-scale joint academic conferences can be organize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considering both academic and social aspects of research and practice. This study mainly reported the results of the online survey. Also, it shed light on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and events as well as the group discussions and feedback from the participants at the joint conference held in December 2022.

키워드: 문헌정보학, 학술지, 학술행사, 인식, 연구자, 실무자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cademic Journals, Scholarly Events, Perception, Researcher, Information Professional

*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ongwook@knu.ac.kr / ISNI 0000 0004 6830 6145)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kimsoojung@jbnu.ac.kr / ISNI 0000 0004 6324 634X)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angheeh@skku.edu / ISNI 0000 0004 7877 1761)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3년 1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2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365-386,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365>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활동은 지난 50여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영역에 대한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강미희, 김정현, 2014; 박자현, 송민, 2013; 박지연, 정동열, 2013), 크게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동열, 2016). 이러한 연구영역 내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 또는 축소되거나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2018)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문헌정보학 연구의 지적구조를 분석하여 주제 영역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박지연과 정동열(2013)의 연구에서도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의 일부 연구주제 영역(예, 정보조직)이 세분화·전문화되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세분된 관심 주제에 대한 학술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문공동체인 '학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학회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이하 '4개 학회')가 있다. 이들 학회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발전과 도서관과 각종 기관에서의 정보관리 및 제공 업무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개 학회는 문헌정보학 연구주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술지를 각각 발간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와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지평이 끊임없이 변화(이재운, 2022; 정동열, 2016;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하는 가운데 이들 학회는 학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학문과 현장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 학회의 활동 가운데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 연구는 4개 학회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으며 1) 학회 관계자와 연구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김수정 외, 2022)과 2)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총 2단계로 구성되었다. FGI를 통해 학술지의 품질, 심사 및 출판 방식, 독자층, 학제성, 현장성, 국제화, 특성화 등을 비롯한 학술행사의 개최방식, 기획 및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유형, 특성화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 그렇지만 FGI 결과만으로는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FGI 결과에 기반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위의 학회원들(전임교원, 사서/사서교사,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대학원생) 간의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질문 1: 문헌정보학 4개 학술지에 대한 학회원의 인식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인식에 있어 직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 연구 질문 2: 문헌정보학 4개 학회의 학술 행사에 대한 학회원의 인식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인식에 있어 직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문헌정보학 주요 학회들의 학회지와 학술행사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4개 학회의 학술지와 학술행사를 중심으로 학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학회 발전방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2.1 선행연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긴 역사를 고려해 볼 때 학회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학계 발전방향을 논의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1983년에 한국도서관학회의 주도로 학과 명칭 개정과 관련하여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다(손정표, 1983). 학과 명칭의 변경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여 학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학과 명칭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정근, 이수상(1997), 김영기(2000) 등은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문헌정보학이 식민성을 탈피하고 한국 도서관 현장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합성을 지닌 학문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기존의 형식에 얽매인 학술논문쓰기 방법을 지양하고 주제 선정, 연구방법, 문체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글쓰기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문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강단의 연구자들과 현장의 사서들이 연계하여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인 이론을 생산·적용하여 도서관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김정근, 이수상(1997), 김영기(2000)와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학회 회원들의 의견 및 요구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 그리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4개 학술지 및 학술행사로 범위를 한정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문헌정보학계 외에 여러 학문 분야(예, 교육학, 상담심리학, 회계학, 정신의학)에서 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를 하였다(김문철, 전영순, 황문호, 2014; 박상완 외, 2022; 서영석 외, 2019, 이준석 외, 2012). 이러한 연구에서는 학회의 연구, 교육, 사회적 책임 등 학회 활동 전반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미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밖의 타 학문 분야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은 1단계 FGI 연구 결과와 함께 김수정 외(2022)의 논문에서 기술하였다.

2.2 사례조사

해외 문헌정보학 연구 분야의 학회는 세부 주제에 따라 다양한 편이지만, 문헌정보학, 정보학을 아우르는 연구와 교육에 집중한 대표적인 학회로는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ALISE)와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ASIS&T)가 있다. 국내 학회 설립보다 약 50여 년 정도 앞서 설립된 두 개 학회들의 간단한 역사와 현재 학술지 운영 방식 및 학술활동을 조사하여 국내 학술지와 학술활동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2.1 ALISE

1915년에 설립된 ALISE¹⁾는 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s라는 학회명으로 미국 도서관학 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함께 찾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약 70년 후인 1983년에는 학회의 목적을 전 세계 문헌정보학 교육으로 확장하여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다. ALISE는 국제적 리더십을 갖춘 학회 회원들과 기관 간의 협력, 지지, 연구를 통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정보전문가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학회 사명으로 삼고 있다.

ALISE는 1960년부터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JELIS)를 연간 4회 출간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교육뿐만 아니라 기록학, 데이터사이언스 혹은

정보학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도 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면 학술지에 게재한다. JELIS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2명,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ALISE는 학술지인 JELIS 이외에도 도서 시리즈(ALISE Book Series)를 제작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의 논문 발표집(Conference Proceeding)도 온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

JELIS는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s)뿐만 아니라 도서나 기타 자료의 리뷰(Book Reviews), 필요에 따라 편집사항의 안내에 대한 글(Editorial)이나 문헌정보학 교육이나 교육 철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글(Commentary)도 실고 있다. 모든 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여러 차례의 수정 절차를 거쳐 출판된다. 논문마다 초록과 키워드를 제공하며 논문의 주요 결과를 3-4개 정도로 요약한 Key Points를 논문 첫 페이지에 게시한다.

ALISE 학술 활동으로는 학술대회(Annual Conference), 대학별 교수 채용을 위한 서비스(Job Placements Service), 시상과 연구사업 지원 서비스(Awards and Grants), 웨비나(Webinar), 워크숍 형태의 리더십 아카데미(Leadership Academy) 등이 있다. 학술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연구논문 발표(Juried Paper), 패널 토론(Juried Panel), 진행 중인 연구 포스터 발표(Work in Progress Posters)의 세션을 비롯하여 학술대회에서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ALISE Academy), 세부 분야 그룹 세션(Special Interest Group Session)에 대한 프로포절을 공개적으로 접수받으며, 동료평가 심사과정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여할 연구와 활동을 선정한다. 학

1) <https://www.alise.org/>

술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학회 운영진 회의, 대학별 교수 채용 서비스, 연구와 연구자 시상이 함께 진행되며, 유관기관과 기업의 스폰서, 전시, 광고 부스가 학술대회 기간동안 제공된다. ALISE는 매년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교육, 서비스, 전문직 발전 등에 기여한 회원을 선정하고, 학술대회에 참여한 연구 논문, 포스터, 박사과정 학생들의 발표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연구(자)에게 시상한다. 매년 진행된 시상 내용과 수상자의 이름, 관련 정보는 ALISE 홈페이지에서 게시된다. ALISE는 문헌정보학 분야 정보 교류와 학습을 위한 e-forum 형식의 웨비나(Webinar)를 1년에 약 10번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이전에 열렸던 웨비나의 경우 ALISE 회원이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2.2 ASIS&T

ASIS&T²⁾는 1937년 American Documentational Institute(ADI)이라는 이름으로 과학 연구나 전문직 실무 기관, 정부 기관의 정보 보급을 위한 마이크로 필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출발했다. ADI의 연구 지원과 업무 영역이 정보 조직, 운영, 시스템, 기술 등으로 확장되고 개인이나 대학 등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미국 학회로 발전하면서 1968년 학회명을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ASIS)로 변경하였다. 2000년에는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ASIS)에 Technology를 추가하여 ASIS&T로 변경하고 2013년에 앞부분의 American Society를 Association으로 변

경하여 현재의 학회명에 이르렀다. ASIS&T는 정보과학과 기술 관련 연구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학회로 관련 분야 연구와 전문성 증진을 사명으로 한다. ALISE는 문헌정보학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ASIS&T는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섭렵하고 있는데, 정보학, 컴퓨터학, 언어학, 경영학, 도서관학, 공학, 법학, 의학, 교육학 등을 포함한다.

ASIS&T는 1950년부터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JASIS&T)를 월간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과 함께 6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JASIS&T는 주로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을 실고 있지만, 그 외에도 소식지(Brief Communications), 연구 동향에 대한 견해에 대한 글(Opinion Papers), 서평(Book Reviews) 등을 제공한다. 학술지에 출간되는 연구논문을 포함하는 모든 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논문만 여러 차례의 수정 절차를 거쳐 출판된다. 모든 논문은 서지정보와 함께 초록, 본문, 참고문헌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에 대한 문헌리뷰로 구성된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Technology (ARIS&T)를 1966년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2011년에 중단했다가 2021년부터 재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Inside ASIS&T Newsletter는 학회 소식이나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소식을 수합하여 1년에 5-6번 정도 온라인으로 발간 중이다. 그 외에도 학술대회 논문집인 Proceedings

2) <https://www.asist.org/>

of ASIS&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ASIS&T의 학술활동으로는 학술대회(Annual Conference), ASIS&T, ALISE, iSchool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소규모 워크숍인 Information Science Summit, 전 세계 지역이나 연구주제에 따른 소규모 공동체인 Chapters와 Special Interest Group(SIG)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웨비나, 워크숍, 온라인 24시간 학회모임(24-hour Global Conference) 등이 수시로 진행된다. 매년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연구논문 발표(Paper), 패널 토론(Panel), 연구 포스터 발표(Posters)의 세션을 비롯하여 학술대회에서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 튜토리얼에 대한 프로포절을 공개적으로 접수받으며, 동료평가 심사과정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여할 연구와 활동을 선정한다. 또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학회 운영진 회의, 연구 유관기관과 기업의 스폰서, 전시, 광고 부스가 제공된다. 더불어, 한 해 최고 연구자를 시상하는 Award of Merit를 비롯하여 리더십, 교육, JASIS&T 최우수 연구, 정보학 도서, 우수 석사 혹은 박사학위 논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연구자에 대한 시상

이 학술대회에서 함께 진행된다.

3. 연구방법

3.1 설문지 구성

설문 내용은 앞서 실시된 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 항목과 결과(김수정 외, 2022)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3개 영역(응답자 배경정보, 학술지 현황과 발전방안, 학술행사 현황과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었다(〈표 1〉참고). 폐쇄형 및 개방형 질문과 동일유형의 질문에 대한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폐쇄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 기반한 질문 건너뛰기 로직을 적용하였다. 설문지 개발 후,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와 학회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3인으로부터 설문 내용과 형식, 방식 등의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서베이몽키'(www.surveymonkey.com)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작하였다.

〈표 1〉 설문 내용

영역	설문 문항 내용
응답자 배경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직위, 주요 관심 분야, 소속기관 소재 지역
학술지 현황과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품질 및 학술지 간 품질 차이에 대한 인식 • 심사 절차 및 방식, 출판 및 유통 방식 개선 필요성과 방안 • 독자층, 현장성, 학제성(다른 학문과의 관련성) 강화 필요성과 방안 • 국제화, 차별화(특성화) 노력 필요성과 방안 • 4개 학술지 중수에 대한 의견
학술행사 현황과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 주관 학술행사 참여 경험, 참여 및 불참 이유 • 학술행사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인식 • 4개 학회 학술행사 간 차별화(특성화) 필요성과 방안 • 공동학술대회 개최 필요성, 개최 시 고려사항 •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다양화 요소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4개 학회 중 1개 이상에 회원으로 등록된 1,640명(중복 제외)의 학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회의 협조로 학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였으며, 학회원들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가 포함된 설문 초대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응답에 앞서 연구의 개요를 비롯한 참여자 동의서(연구 목적 및 배경, 연구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 준수사항, 자발적 참여 및 참여 거부와 철회의 자유 등)를 확인하도록 안내받았으며³⁾, 이에 동의하면 버튼을 눌러 설문이 시작되었다. 설문조사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97명이 설문 응답(설문 대상자의 12.4%)을 완료하였다.

설문 응답률을 높여 무응답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회원들에게 안내 메일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며, 각 학회 총무이사의 협조를 통해 학회별 회원들이 속해 있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서도 참여를 요청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고유한 이메일 주소 기준 1,640명) 가운데는 과거에 학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학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이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동일 학회원이 학회별로 다른 이메일(예, 대학 이메일, 검색포털 이메일)을 등록한 경우가 있어 1회만 참여하였다는 언급이 여러 차례 있음을 고려하면 학회에서 활동 중인 전체 학회원 수는 설문조사 대상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문 응답을 완료한 전임교원의 수는 86명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2022년 12월 기준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분야 전체 전임교원 수(178명)의 48.3%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문항은 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 분석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나아가 응답자의 직위에 따른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카이제곱(χ^2) 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직위는 '전임교원', '사서/사서교사',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기타' 집단은 응답자 수(9명)가 적어 응답자 직위 간 인식 차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 시, 응답자 직위에 따른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만 이를 언급하였다. 또한 5점 Likert 척도 응답에서 '의견 없음'을 선택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배경정보

설문 응답자(N=197명)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122명(62%)이었으며, 남성이 75명(38%)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40대와 50대가 각각 66명(34%),

3)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임(IRB File No. 2022-08-024-001).

58명(29%)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직위를 살펴본 결과, 전임교원이 8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사서교사가 42명(21%),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이 32명(16%), 대학원생이 28명(1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124명(63%)은 서울/경기 소재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응답자

의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서비스/정보행위(39명), 문헌정보학일반(32명), 도서관/정보센터 경영(30명), 데이터사이언스(20명), 정보학(19명), 기록관리학(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참고).

최근 3년 이내 학술지 투고 경험(복수응답)(N=197)을 살펴본 결과(<표 3> 참고), 응답

<표 2> 설문 응답자 특성(N = 197)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122	61.9
	남성	75	38.1
연령	20대	19	9.6
	30대	38	19.3
	40대	66	33.5
	50대	58	29.4
	60대 이상	16	8.1
직위	전임교원	86	43.7
	사서/사서교사	42	21.3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32	16.2
	대학원생	28	14.2
	기타	9	4.6
소속기관 소재 지역	서울/경기권	124	62.9
	충청권	26	13.2
	경상권	25	12.7
	전라권	17	8.6
	기타 또는 해당사항 없음	5	2.5
주요 관심 분야	정보서비스/정보행위	39	19.8
	문헌정보학 일반	32	16.2
	도서관/정보센터 경영	30	15.2
	데이터사이언스	20	10.2
	정보학	19	9.6
	기록관리학	15	7.6
	정보검색	10	5.1
	계량서지학	7	3.6
	자료조직	12	6.1
	정보자료/미디어	5	2.5
	서지학	5	2.5
	독서교육/프로그램	3	1.5

〈표 3〉 응답자 학술지 논문 투고 경험(복수응답)

직위	학술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전임교원	50(64.9%)	64(65.3%)	46(61.3%)	45(64.3%)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12(15.6%)	15(15.3%)	11(14.7%)	2(2.9%)
사서/사서교사	8(10.4%)	10(10.2%)	10(13.3%)	6(8.6%)
대학원생	5(6.5%)	7(7.1%)	8(10.7%)	15(21.4%)
기타	2(2.6%)	2(2.0%)	0(0%)	2(2.9%)
전체	77(100%)	98(100%)	75(100%)	70(100%)

자 98명(49.7%)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경험이 있었으며, 77명(39.1%)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75명(38.1%)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0명(35.5%)은 정보관리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학술지에 논문 투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65%는 전임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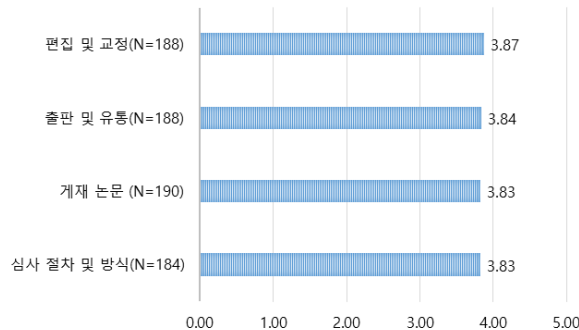
또한 최근 3년 이내 4개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한 경험(N=197)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9명(60.4%)이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78명(38.6%)은 참여 경험이 없었다.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19명 가운데 63명(52.9%)은 전임교원이었고, 다음으로 사서/사서교사 19명(16.0%),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17명(14.3%), 대학원생 16명(13.4%) 등의 순이었다.

4.2 학술지에 대한 인식

4.2.1 학술지 품질 및 중수

문헌정보학 4개 학술지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인식(N=197)을 조사한 결과, ‘편집 및 교정’(M=3.87), ‘출판 및 유통’(M=3.84), ‘게재 논문’(M=3.83), ‘심사 절차 및 방식’(M=3.93) 등이 우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참고). 또한 4개 학술지 간 품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71명, 36.0%)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70명, 35.5%)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56명(28.4%)이 응답하였다.

문헌정보학 전반을 다루는 학술지 중수(N=197)로 ‘4개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103명(52.3%)으



〈그림 1〉 학술지 품질에 대한 인식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개보다 많아야 한다'(43명, 21.8%), '4개보다 적어야 한다'(28명, 14.2%), '의견 없음'(23명, 11.7%)의 순이었다. 학술지 종수에 대한 응답자 직위에 따른 차이가 존재($\chi^2(9) = 17.326, p = .044$)하였는데,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집단에서 '4개보다 많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전임교원' 집단에서는 '4개보다 적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표 4〉 참고).

4.2.2 심사

4개 학술지의 심사 절차와 방식 개선 필요성(N=197)에 대해서는 78명(39.6%)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76명(38.6%)은 개선이 불필요, 43명(21.8%)은 '의견 없음'을 응답하였

다.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대다수 응답자는 현재의 심사 절차와 방식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직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chi^2(6) = 18.896, p = .004$)하였는데, 특히 '전임교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개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5〉 참고).

심사 절차와 방식의 개선(N=78)에 있어 심사 기준을 체계화(M=4.00)하고 심사 의견이 원고 수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M=3.63)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권한을 강화(M=3.42)하고 더 많은 심사 기간을 부여하는 것(M=3.17)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 참고).

〈표 4〉 응답자 직위에 따른 학술지 종수 인식(N=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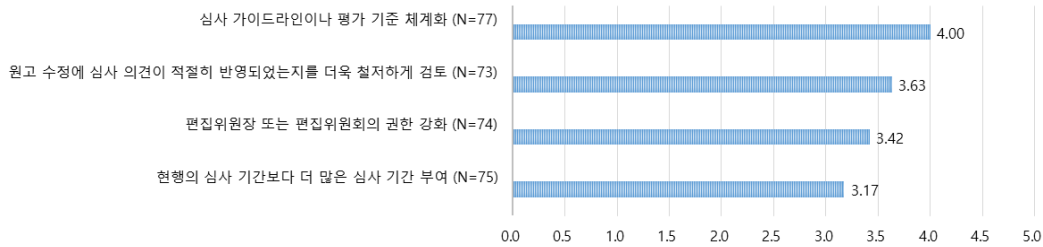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사서/사서교사	대학원생	전체
4개가 적당하다	47(54.7%)	11(34.4%)	23(54.8%)	17(60.7%)	98(52.1%)
4개보다 많아야 한다	12(14.0%)	12(37.5%)	12(28.6%)	6(21.4%)	42(22.3%)
4개보다 적어야 한다	17(19.8%)	3(9.4%)	2(4.8%)	4(14.3%)	26(13.8%)
의견 없음	10(11.6%)	6(18.8%)	5(11.9%)	1(3.6%)	22(11.7%)
전체	86(100%)	32(100%)	42(100%)	28(100%)	188(100%)

비고, '기타' 집단(N=9)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5〉 응답자 직위에 따른 심사 절차 및 방식 개선 필요성 인식(N=188)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사서/사서교사	대학원생	전체
그렇다	45(52.3%)	14(43.8%)	11(26.2%)	6(21.4%)	76(40.4%)
그렇지 않다	32(37.2%)	10(31.3%)	16(38.1%)	14(50.0%)	72(38.3%)
의견 없음	9(10.5%)	8(25.0%)	15(35.7%)	8(28.6%)	40(21.3%)
전체	86(100%)	32(100%)	42(100%)	28(100%)	188(100%)

비고, '기타' 집단(N=9)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2〉 심사 절차 및 방식 개선사항

4.2.3 출판 및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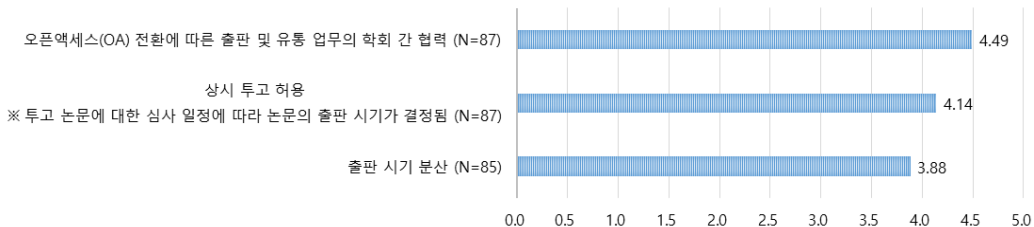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N=197) 가운데 89명(45.2%)은 출판 및 유통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9명(35%)은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9명(19.8%)은 이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기존의 출판 및 유통 체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며, 특히 오픈액세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N=89)을 살펴본 결과(〈그림 3〉 참고), 학회 간 협력(M=4.49)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의 개별 호 발간을 위한 원고 모집 마감일을 두는 방식에서 상시 투고를 허용하여 개별 원고의 심사·출판 일정에 따라 출판일이 결정되는 방식(M=4.14)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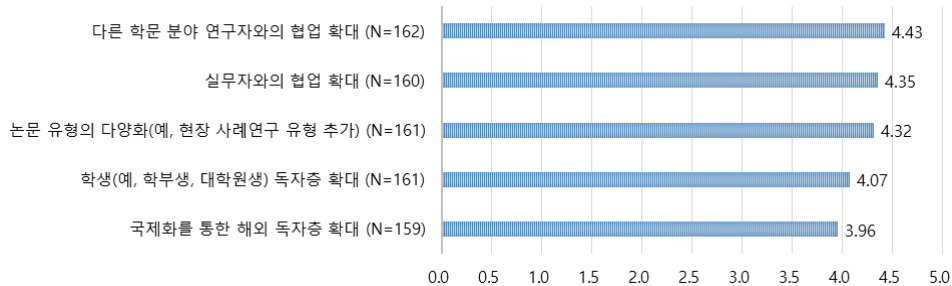
졌다. 나아가 현재 3개의 학술지의 간행 시기가 겹치는 것을 고려하여, 학술지 간 간행 시기를 분산하는 것(M=3.88)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4 독자층

4개 학술지의 독자층(N=197)과 관련하여, 대다수 응답자(163명, 82.7%)는 독자층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15명(7.5%)만이 독자층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9명(9.6%)은 '의견 없음'을 응답하였다. 독자층 확대 방안(N=163)으로는 타 학문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M=4.43)이나 실무자와의 협업(M=4.35)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논문 유형의 다양화(M=4.32), 학생 독자층 확대(M=4.07), 국제화를 통한 해외 독자층 확대(M=3.96)의 순이었다(〈그림 4〉 참고). 국



〈그림 3〉 출판 및 유통 방식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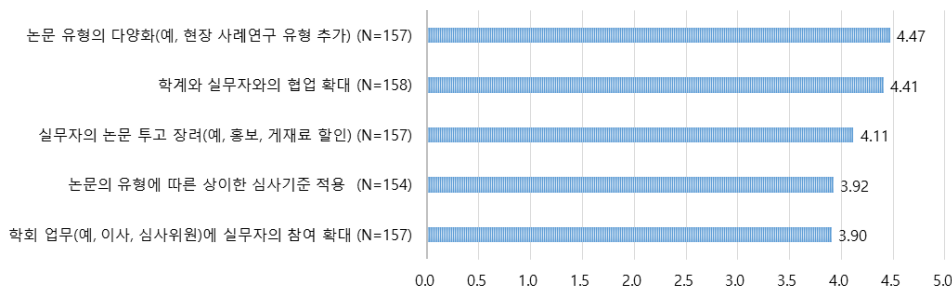
〈그림 4〉 독자층 확대 방안

제화를 통한 해외 독자층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직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유의미 ($F(3, 147) = 2.814, p = .041$) 하였으나 Tukey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4.2.5 현장성

대부분의 응답자(158명, 80.2%)는 4개 학술지의 현장성(현장과의 관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장성 강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7명(8.6%)이었고, 나머지 22명(11.2%)은 '의견 없음'을 응답하였다. 현장성 강화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학술지마다 목적이나 역할이 다르다는 것과 이미 현장성을 갖춘 논문이 출판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현장성 강화 방안(N=158)으로는 논문 유형의 다양화(M=4.47)와 학계와 현장 간 협업 확대(M=4.41)가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문의 유형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적용(M=3.92)하고, 학회 업무에 실무자의 참여를 높일 필요(M=3.90)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5〉 참조). 학회 업무에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직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 ($F(3, 148) = 3.509, p = .017$) 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M=4.15)과 '사서/사서교사'(M=4.12) 집단이 '대학원생'(M=3.45) 집단에 비해 그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 현장성 강화 방안

4.2.6 학제성

4개 학술지의 학제성(다른 학문과의 관련성) (N=197)에 대해서는 163명의 응답자(82.7%)가 학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17명(8.6%)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나머지 17명(8.6%)은 '의견 없음'을 응답하였다. 학제성 강화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이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학제성을 강화하다 자칫 학술지의 정체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제성 강화 방안(N=163)으로는 타 학문 분야 연구자와 협업을 확대(M=4.35)하고 타 학문 분야에서의 인용도를 높이고(M=4.30), 융복합 주제를 다루는 논문의 비율을 높이는 것(M=4.26)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지 주제 범위를 넓게 설정(M=4.18)하고, 학회 업무에 타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M=3.77)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참고).

4.2.7 국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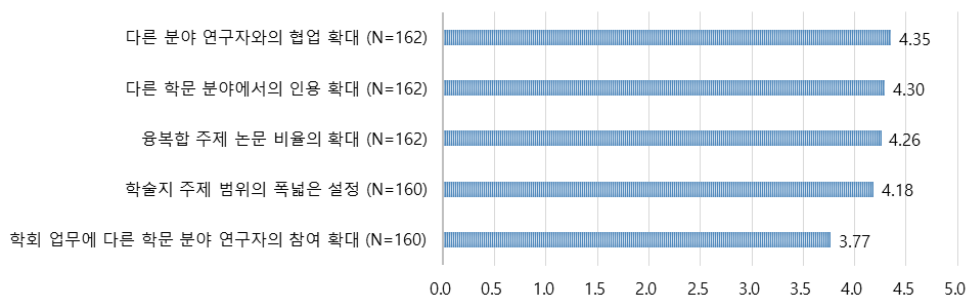
4개 학술지의 국제화 노력에 대한 인식(N=197)으로는 응답자 141명(71.6%)이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27명(13.7%)은 노력

의 확대 불필요, 29명(14.7%)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형식적인 국제화(예, 원고의 영문화)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국내에서의 학술활동 내실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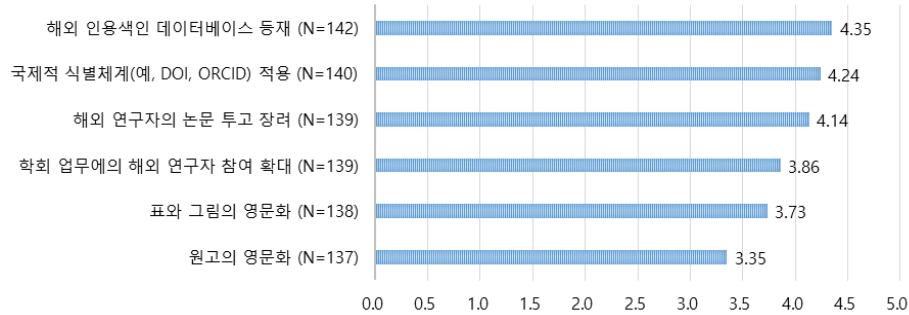
국제화를 위한 방안(N=141)으로는 학술지가 Web of Science나 Scopus와 같은 해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M=4.35)과 국제적 식별 체계를 적용(M=4.24)하는 것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었다. 이 밖에 해외 연구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해외 연구자의 논문 투고 장려(M=4.14)', '학회 업무에의 해외 연구자 참여 확대(M=3.86)')도 중요한 편이었다(〈그림 7〉 참고). '원고의 영문화'(M=3.35)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자 직위 간 유의미한 차이($F(3, 126) = 4.427, p = .004$)가 있었는데, '사서/사서교사'(M=3.80)가 '전임교원'(M=3.03)에 비해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2.8 차별화(특성화)

4개 학술지 간 차별화(특성화) (N=197)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41명(71.6%)은 차별화가



〈그림 6〉 학제성 강화 방안



〈그림 7〉 국제화 노력 확대 방안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33명(16.8%)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23명(11.7%)은 이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차별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주요 이유로는 이미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의견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규모가 크지 않아 오히려 학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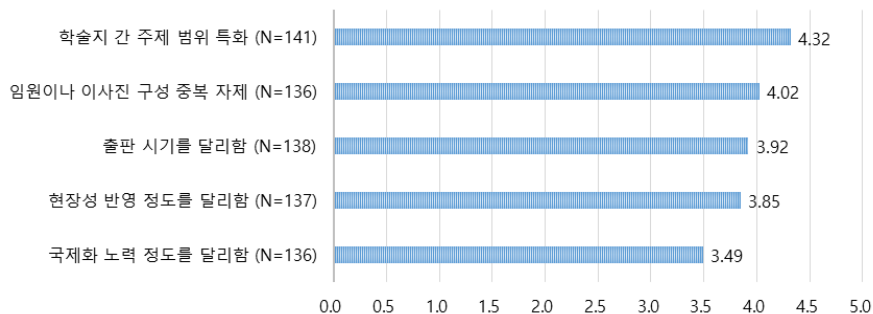
차별화 방안(N=141)으로는 주제 범위를 특화하는 것(M=4.32)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회 임원이나 이사진 구성의 중복을 자체(M=4.02)하고, 출판 시기를 달리(M=3.92)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성 반영 정도를 달리(M=3.85)하는 것도 차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참고). 한편 학술지 간 출판 시기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직위에 따른 인식 차이($F(3, 128) = 4.58, p = .004$)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M=4.32)은 '대학원생'(M=3.50)이나 '사서/사서교사'(M=3.61)에 비해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전임교원'(M=4.15)은 '사서/사서교사'(M=3.61)에 비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3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

4.3.1 참여 및 불참 이유

최근 3년 이내 학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19명의 참여 이유와 참여한 경험이



〈그림 8〉 차별화(특성화) 방안

없는 응답자 78명의 불참 이유를 각각 조사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먼저 학술행사 참여 이유(N=119)로는 '발표 또는 토론 참여'(74명, 62.2%)와 '최신 연구동향 파악'(74명, 62.2%)과 같이 학술적 목적이 가장 빈번했으며, '다른 연구자와의 교류 및 친목 도모'(45명, 37.8%)나 '학회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참여'(39명, 32.8%)와 같이 사회적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불참 이유(N=78)로는 '학기 중 바쁜 일정'(40명, 51.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표자 또는 토론자가 아님'(26명, 33.3%), '학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음'(24명, 30.8%) 등의 순이었다. 이는 더욱 많은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최 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발표자나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학회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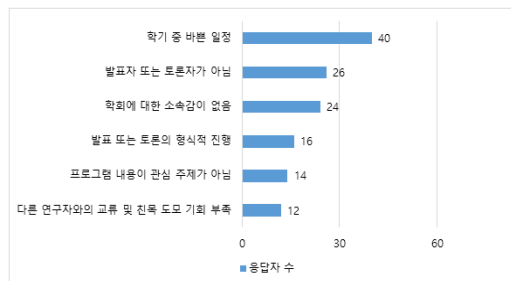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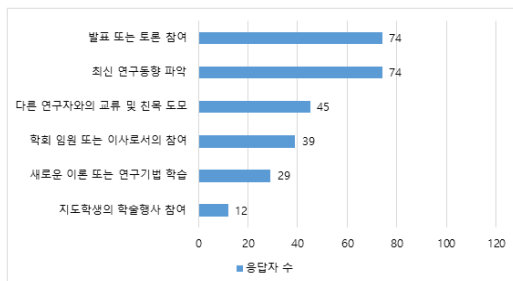
4.3.2 학술행사 목적 달성 정도

학회 학술행사는 학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개 학회의 학술행사가 이러한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성과 공유'(M=3.83)나 '연구 아이디어 모색'(M=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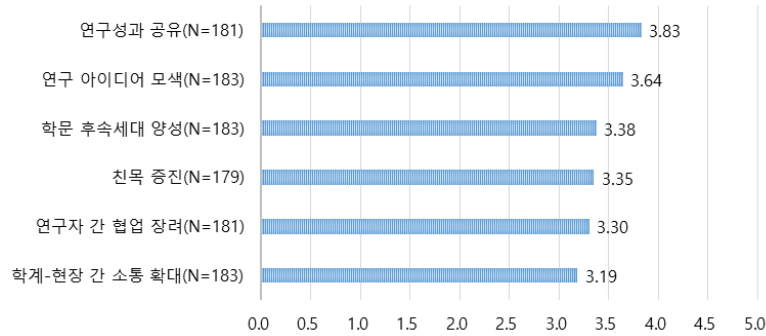
과 같은 학술적 목적 달성 정도가 '학문 후속세대 양성'(M=3.38), '친목 증진'(M=3.35), '연구자 간 협업 장려'(M=3.30)와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정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고). 본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평균 4점 이하로 높지 않은 것은 학술행사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특히 사회적 측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4.3.3 학회 학술행사 간 차별화

학회 학술행사 간 차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N=197)의 138명(70.1%)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4명(17.3%)은 차별화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5명(12.7%)은 이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차별화 요소로 주제 분야의 특성화를 언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 외에 현장성 강화(예, 현장 전문 단체와의 협력, 실무자 참여 확대), 국제화 등이 거론되었다. 반면 차별화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고, 융합학문 분야로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있었다.



<그림 9> 학술행사 참여 및 불참 이유



〈그림 10〉 학술행사 목적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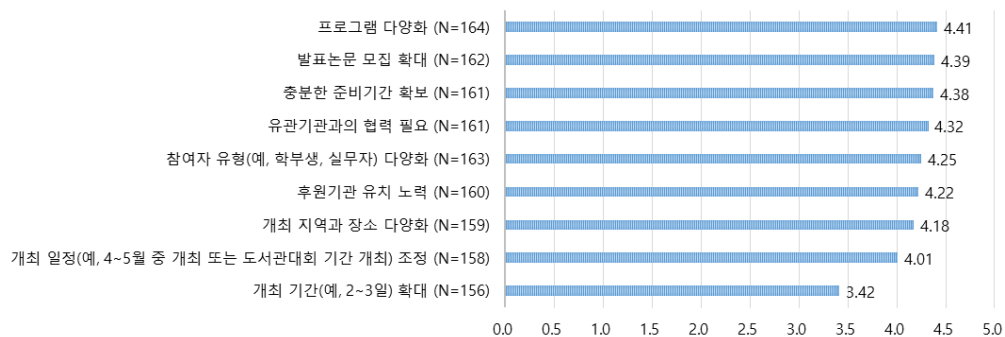
4.3.4 공동학술대회 활성화 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필요성(N=197)에 대해서는 164명(83.2%)의 응답자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22명(11.2%)은 ‘그렇지 않다’, 11명(5.6%)은 ‘의견 없음’을 응답하였다.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공동 개최가 오히려 전문화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저해한다는 것과 다양성과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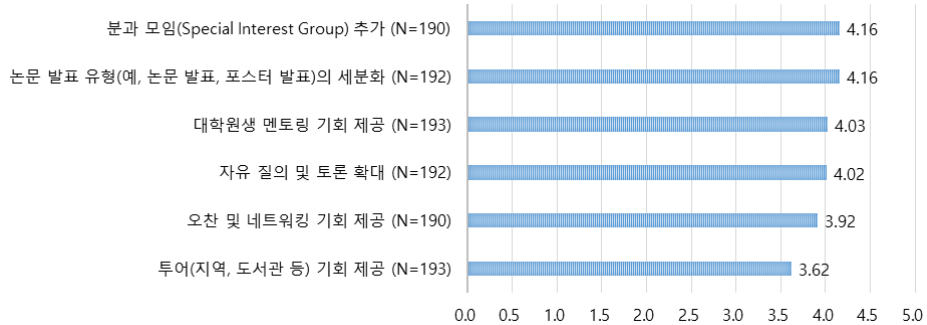
공동학술대회 개최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M=4.41)하고, 발표 논문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것(M=4.39)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M=4.38), 유관기관과의 협력(M=4.3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고). 또한 학부생이나 실무자 등으로 참여자의 유형을 다양화(M=4.25)하고, 후원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M=4.22)도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개최 장소를 다양화하고, 개최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개최 기간 확대’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직위에 따른 차이($F(3, 146) = 3.182, p = .026$)가 있었는데,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M=3.89)이 ‘전임교원’(M=3.26)에 비해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동학술대회 개최



〈그림 11〉 공동학술대회 개최 시 고려사항



〈그림 12〉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다양화 요소

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분과 모임(Special Interest Group, 이하 ‘SIG’) (M=4.16)과 논문발표 유형의 다양화(M=4.16)를 비롯한 대학원생 멘토링(M=4.03), 자유 질의 및 토론 확대(M=4.02)가 있었으며, 오찬을 비롯한 네트워킹 기회(M=3.92)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고). 논문 발표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 직위 간 인식 차이($F(3, 179) = 3.037, p = .030$)가 존재했는데, 특히 ‘비전임교원/강사/연구원’ (M=4.38)은 ‘대학원생’(M=3.88)에 비해 논문발표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유 질의와 토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 직위에 따른 인식에 차이($F(3, 180) = 1.555, p = .03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ukey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4개 학회의 학술

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된 FGI 연구(김수정 외, 2022)와 후속 단계로 실시된 설문조사 연구 결과는 2022년 12월에 개최된 ‘한국 문헌정보학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에서 각각 발표되었다. 발표 직후, 1개 그룹 당 약 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토론(총 5개 그룹)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앞서 조사한 해외 문헌정보학 학회지와 학술행사의 사례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4개 학회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4개 학술지의 전반적인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개선 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자층 확대, 학제성 및 현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이들 요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학제성을 강화하여 타 분야 연구자의 논문 게재 비율이 높아지거나 현장성을 강화하여 실무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논문이 많아지면 독자 유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

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인 JELIS나 JASIS&T의 경우,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도서 리뷰, 교육 철학이나 연구동향 에세이 등의 유형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되 다양한 유형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4개 학술지도 학제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내용과 형식, 심사 절차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타 분야 연구자나 실무자와의 협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

학제성 강화 방안으로 타 분야에서의 인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는 학제성 수준을 측정하는 단서로 인용 관계가 빈번하게 활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재윤, 2021). 또한 현장성 강화가 중요하게 거론된 이유로는 국내 문헌정보학의 특성상 도서관·정보센터, 기록관 등을 다루는 논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무자가 참여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정재영, 박진희, 2011). 이는 오래전 김정근, 이수상(1997), 김영기(2000)가 지적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 결여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그룹 토론에서는 이러한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와 실무자 간 연구 내용과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비)공식 연구 모임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실무자의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예, 도서관 평가, 사서 직무 평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제화에 대한 노력 또한 앞서 언급한 독자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다만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원

고나 표·그림의 영문화 보다는 해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나 국제적 식별 체계의 적용 등 유통 체계의 글로벌화와 해외 연구자의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술지의 영문화와 같은 외형적 국제화가 아닌 논문 내용의 내실화와 글로벌 유통 중심의 국제화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학술지 간 차별화 필요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차별화 요소로는 주제 범위, 학회 구성원, 출판 시기, 현장성 반영, 국제화 노력 등이 있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학술지 간 주제 범위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소그룹 토론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나 투고 논문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술지를 특정 요소로 전면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4개 학술지 모두 문헌정보학 분야를 다루되 기획이나 특별 주제를 다루는 호(issue)를 발간하는 정도의 차별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밖에 출판 및 유통과 심사 부문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학술지 간 출판 시기 분산, 오픈액세스 전환에 따른 학회 간 협력 강화와 심사 기준 및 절차의 강화는 학술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회의 학술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술행사가 학술적 및 사회적 측면을 두루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학회가 최근 들어 학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것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회는 학술행사를 통해 학문 후속세대가 문헌정보학 분야에 자긍심을 갖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학회 학술행사 간의 차별화를 추구하기보다 대규모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학술대회에서 포괄적인 테마 아래 발표논문 유형(예, 논문발표, 포스터 발표)이나 주제(예, SIG, 현장 문제를 논의하는 세션, 참여 대상(예, 신진연구자, 대학원생 등을 위한 세션) 등으로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에서 소개한 ALISE와 ASIS&T의 학술대회 운영방식과 유사하다. 예컨대, 매년 1회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연구논문 발표를 비롯하여 패널 토론, 연구 포스터 발표, 유관 단체·기업의 전시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여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 실무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연중 수시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관심이 같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소규모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학술대회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표자와 참여자를 모집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4개 학회에 소속된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회에서 발간·운영하는 학술지 및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4개 학술지의 전반적인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독자층 확대, 학제성 및 현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의 내용과 형식, 심사 절차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장사서 및 타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학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되 발표논문 유형, 주제, 참여 대상 등으로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학술행사가 회원 간의 친목 향상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계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술지 및 학술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로 나타난 직위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직위 별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인식 차이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김정현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http://dx.doi.org/10.16981/kliss.45.201412.457>
- 김문철, 전영순, 황문호 (2013). 창립 40주년에 즈음한 한국회계학회의 발전방안. 회계저널, 23(2), 1-38. UCI: G704-000663.2014.23.2.002
- 김수정, 이종욱, 정인영, 오상희 (2022).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학술행사 인식 연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319-345. <http://dx.doi.org/10.16981/kliss.53.4.202212.319>
- 김영기 (2000). 한국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2), 191-209.
- 김정근, 이수상 (1997).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125-151.
- 박상완, 김민조, 박소영, 장우천 (2022). 학문공동체로서 학회의 역할과 참여 실태 분석: 교육행정·교원교육·교육재경·교육정치학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0(1), 343-371. <http://dx.doi.org/10.22553/keas.2022.40.1.343>
- 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07>
- 박지연, 정동열 (2013).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031>
- 서영석, 인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I : 학회 제반 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65-1405. <http://dx.doi.org/10.23844/kjcp.2019.11.31.4.1365>
- 손정표 (1983). 한국도서관학회 명칭개정안. 圖書會報, 24(4), 10-11.
- 이재운 (2021). KCI 인문학과 사회과학 학술지의 다학문성과 학제성 분석: 일반 및 기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8(2), 227-250.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2.227>
- 이재운 (2022). 문헌정보학 4개 학회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학회지 저자 집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22년도 한국 문헌정보학 4개 학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동학술대회, 49-66.
- 이준석, 강유미, 이현권, 김양석 (2012). 한국정신분석학회 Vision 2030 설문 결과 보고서. 정신분석, 23(2), 79-86.
- 정동열 (2016). 한국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의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학술지 논문 주제분석을 기반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5-34.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005>
-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1. <http://dx.doi.org/10.16981/kliss.42.2.201106.171>
-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연구 동향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2003

부터 2017까지. 정보관리학회지, 35(2), 89-114.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2.08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Hyungwook, Choi, Yejin, & Nam, Soyeon (2018). Time series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and research trend chang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3 to 201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2), 89-114.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2.089>
- Chung, Jaeyoung & Park, Jin-Hee (2011).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71-191. <http://dx.doi.org/10.16981/kliss.42.2.201106.171>
- Jeong, Dong-Youl (2016). A study on the historical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main in Korea: based on the subject analysis of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5-34.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005>
- Kang, Mi-Hee & Kim, Jeong-Hyen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http://dx.doi.org/10.16981/kliss.45.201412.457>
- Kim, Jung-Gun & Lee, Soo-Sang (1997). A development strateg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in its present st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125-151.
- Kim, Moon-Chul, Cheon, Young-Soon, & Hwang, Mun-Ho (2014). Lessons learned from past 40 years and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Korean Accounting Journal*, 23(2), 1-38. UCI: G704-000663.2014.23.2.002
- Kim, Soojung, Lee, Jongwook, Jeong, In-Yeong, & Oh, Sanghee (2022). Perceptions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319-345. <http://dx.doi.org/10.16981/kliss.53.4.202212.319>
- Kim, Young-Ki (2000). On the relevance of LIS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2), 191-209.
- Lee, Jae-Yun (2021). Analyzing the multi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i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journals in KCI: Focusing on general and miscellaneous fields. *Journal of*

-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2), 227-250.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2.227>
- Lee, Jae-Yun (2022). A study on the human networks of fou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cademic societies: focusing on author group analysis of academic journals. Proceedings of 2022 Joint Conference of four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cademic societies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49-66.
- Lee, Joon-Seok, Kang, Yu-Mi, Lee, Hyun-Kwon, & Kim, Yang-Suk (2012). Report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is vision 2030 survey. *Psychoanalysis*, 23, 79-86.
- Park, Jahyun & Song, Min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32.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07>
- Park, Ji-Yeon & Jeong, Dong-Youl (2013).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031>
- Park, Sang-wan, Kim, Min-Jo, Park, So-Young, & Jang, Woo-Chun (2022). An analysis on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the academic society as an academic community.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40(1), 343-371.
<http://dx.doi.org/10.22553/keas.2022.40.1.343>
- Seo, Young-Seok, An, Soo-Jung, An, Ha-Yan, & Rhie, So-Yeon (2019). Members' perceptions of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s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I: members' satisfaction and needs for the association's various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4), 1365-1405.
<http://dx.doi.org/10.23844/kjcp.2019.11.31.4.1365>
- Son, Jeongpyo (1983). Proposed amendment to the name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KLA Bulletin*, 24(4), 10-11.